



김 금 수

논설위원

값싼 노동력을 노리고 해외로 진출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현지에서의 잔혹하고 부당한 노무관리가 곳곳에서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부도덕한 노무관리는 일제시기 외국인에게 당했던 무제한적인 착취와 억압의 '원생적' 노동관계나 경제개발 과정에서 경험해온 외자기업의 파렴치한 관리방식을 답습한 것인가? 아니면 그것에 대한 보복심리의 발로인가?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자본이 본래적으로 지닌 탐욕의 속성이 노무관리의 비인도적 행태를 낳는다고 보는 것이 옳은 해석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본의 횡포는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밖에 없다. 국내에서는 미처 알려지지 않은 해

건을 저하시키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또 현지 주민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현대건설쪽은 직업소개 브로커들과 손잡고 고용계약기간을 2~3개월의 단기간으로 정해 말 잘듣는 노동자들만 재계약을 맺는 수법으로 이들을 수탈하고 있다. -〈베리타 하리안〉 93년 4월9일치.

사례3: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와 라호르 사이의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대우건설의 경우, 지난해 12월18일 아와나-대우건설 노동조합이 결성되자 대우건설쪽은 곧바로 노조간부들에 대한 대량해고와 전출조치를 취했으며, 올 1월26일에는 노조원 명부를 경찰에 제공하고 이들을 구속해줄 것을 요청하는 비밀서신을 제출했다. 파키스탄 경찰은 그 다음날인 1월27일 노조간부 32명을 구속영장도 없이 철창 속에 가두었다. 그 뒤로도 노조간부의 구속은 더 늘어났다.

경찰쪽은 노조간부들에게 노조 결성을 포기하도록 갖은 회유와 협박을 가했다. 경찰은 모하메드 샤리프 수상과 대우그룹과의 친분관계를 보더라도 대우건설에 노조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것임을 강조했다. 그런데도 노조간부들은 결코 굴복하지 않았다. 그러자 1월28일 파키스탄 정부는 대우건설 사업장이 이날로 '국가 필

‘추악한 한국인’

외진출 기업의 부당한 노무관리 사례를 밝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이다.

사례1: 인도네시아 탄제랑시에 나가 있는 한국인 소유의 피티 하비 센토사 공장의 경우, 이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 마하나는 지난 7월7일 출근하여 생리로 인한 복통증상으로 못견디게 되어 부서

관리자에게 생리휴가를 신청했으나 이를 거부당한 채 일을 계속해야만 했다. 한시간쯤 뒤 고통은 더 심해지고 하혈까지 하게 되었다. 공장에는 생리대나 화장지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 마하나는 재봉틀을 닦는 데 사용하는 형 겹조각으로 임시 처치를 했다. 그러자 이런 사실을 안 한국인 감독자가 화사물건을 훔쳤다고 꾸짖으며 그 벌로서 2시간 동안 공장 마당에서 있도록 명령했다. 피약벌 아래서 벌을 받던 마하나는 견디지 못한 채 실신하고 말았다. -〈자카르타 포스트〉 93년 7월9일치.

사례2: 동남아시아 최대규모의 석유화학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말레이시아 동부해안의 테렌가우 지역에서 화학단지의 건설을 수주한 현대건설의 경우, 현대건설은 애초의 기대와는 달리 지역주민들을 고용하지 않고 방글라데시나 필리핀으로부터 노동력을 수입하여 임금이나 노동조



수 산업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공표했다.

2월 들어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노동단체들의 항의 활동이 거세지면서 파키스탄 정부는 구속된 노조간부들을 보석으로 석방했다. 3월 2일에는 편집지방법원이 노조설립 신고 필증을 교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런

데도 정부쪽의 항소로 신고필증은 교부되지 않은 채 노조설립은 허가되지 않고 있다. 대우그룹은 지난해 5월 5백에이커 규모의 대우파키스탄산업공단 건설을 허가받으면서 파키스탄 정부에 협정 제1호로 "대우공단 안에서는 모든 파키스탄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요구하여 관철한 일이 있다. -〈국제자유노련, 국제건설노련,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공동조사보고서〉 중에서.

어디 이뿐이겠는가. 최근 들어서도 스리랑카의 신발공장·봉제공장,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서 비인간적인 노무관리에 항의하는 파업과 시위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추악한 한국인'의 이런 부당하고 파렴치한 행위는 현지 노동자의 힘뿐만 아니라 한국 노동조합 역량을 통해서도 응징되어야 마땅하다. 그것이 노동운동의 국제주의 원칙을 실천하는 길이다.